

우기 대비해 송전선로 건설 현장 점검, 재해 방지 준비상황 확인한다

-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현장의 토사유출 방지·안전관리 상황 등 불시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2일 오후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10공구 현장사무실과 송전탑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장마철 대비 송전선로 건설 재해방지 현황을 불시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6월 중·하순부터 예정된 장마를 앞두고 최근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구간의 토사유출 문제 등과 관련하여 현장의 안전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기후부는 이날 현장에서 산지 허가 외 토사유출이 발생했던 개소의 긴급·영구 복구 공정 현황을 살피고, 특히 집중호우시 인근 민가 등에 토사가 추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배수로 정비 상태와 사면 안정화 조치 등 방재 대책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소작업이 많은 송전선로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헬기 운반 및 고소작업 시에 현장 조종·감시 체계, 안전장구 지급 및 착용상태, 외국인 근로자의 소통 관리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관리를 주문할 예정이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최근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공사 과정에서 토사유출 등 대외 우려가 있는만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철저한 보강 공사와 재해 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며, “한전과 시공사, 감리단 등이 합심하여 현장 순찰조를 운영하는 등 우기철 재해 예방과 안전사고 리스크 근절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현장 점검계획.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3-5120)
		담당자	사무관	김일한 (044-203-5119)

1. 점검 개요

- 일 시 : '26.6.2.(화), 14:00 ~ 16:00
- 장 소 : 동해안-신가평 10공구 현장사무실(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348-11)
- 참 석
 - 기후부 전력망정책관, 담당 사무관 등, 건설현장 시공책임자, 한전 등
- 내 용 : 장마철 대비 송전탑 건설현장 및 재해예방 사전점검

2.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 인사 말씀	전력망정책관
14:05 ~ 14:20	15'	• 동해안-신가평 송전탑 공사현장 토사유출 및 안전관리 현황 보고	한전 및 사업소
14:20 ~ 14:35	15'	• 현장 이동 (현장사무실 → 헬기장)	
14:35 ~ 14:55	20'	• 헬기장 현장점검	
14:55 ~ 15:40	45'	• 현장 이동 (헬기장 → 403호 철탁현장)	
15:40 ~ 15:55	15'	• 송전탑 공사현장 점검	403호 철탁
15:55 ~ 16:00	5'	• 총평	전력망정책관